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면에 드러나는 인간의 성취욕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지 속

가면에 드러나는 인간의 성취욕에  
관한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지 속

# 인 준 서

이지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인간의 성취욕이란 나이와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 개개인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본능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창작의 원동력이 된다. 타인을 신경 쓰느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살며 개인의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출되지 못하고 덮어 버린 채 애써 외면하곤 한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의 성취욕이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성되어 가고 인간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잠재된 욕망을 내재하고 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취욕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면을 소재로 삼았다. 가면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대상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인간의 성취욕은 가면이라는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 석사 청구전에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내용의 형성 배경과 조형적 표현을 연구, 분석하여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I. 서론에서는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II. 본론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형성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가면의 전반적인 면의 고찰을 통해 인간의 성취욕이 가면으로 표현되는 연계성을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과 본인의 주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방법에 대해 가면이 어떠한 근거로 표현되었는지, 재료선택의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 작품분석에서는 작품 도판과 작품의 표현 기법, 재료, 의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Ⅲ. 결론에서는 가면을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성취욕에 관한 연구의 총괄적인 정리를 하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론 .....             | 1  |
| II. 본론 .....            | 3  |
| 1. 작품의 형성배경             |    |
| 1) 예술을 통한 성취욕의 해소 ..... | 3  |
| 2) 욕망의 배출구, 가면 .....    | 6  |
| 2. 작품의 표현방법             |    |
| 1) 가면을 통한 표현 .....      | 8  |
| 2) 재료선택의 다양성 .....      | 10 |
| 3. 작품분석 .....           | 14 |
| III. 결론 .....           | 27 |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    |
|---------------------------------|----|
| [작품1] 첫 만남 .....                | 11 |
| [작품2] 뚫리지 않을 자신감 .....          | 11 |
| [작품3] Tension .....             | 12 |
| [작품4] 손대면 특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 | 12 |
| [작품5] 내가 집착하게 된 건 너 때문이다 .....  | 25 |

# I. 서론

인류가 탄생되고 사회집단을 만들어 간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살아가고 있다. 사회집단 속에서 타인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집단 안에서 주어지는 역할을 이행하고 소통해 가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며 그 역할을 요구받은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역할이행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그 결여를 채우려는 것이 성취욕으로서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왜곡되어지고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곤 한다.

욕망은 시각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안에서도 성취에 대한 욕구를 가시화 하는데 있어 은유로써 가면이미지를 차용하였다. 가면은 예로부터 인간의 욕망이 구체화 된 실제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내면을 투사하고 현실 속에서 숨죽여 있던 또 다른 자아의 표상으로서의 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변형을 할 수 있는 성취욕으로부터의 탈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성취욕의 본질을 밝혀 그에 타당한 조형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른 연구방법으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의 근원을 파악하고 가면을 통한 인간의 구체화된 성취

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본인 작업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인이자 조각가로서 본인이 갖는 대상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들은 가면으로 새로운 조형언어를 통해 연출하고자 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배경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탐구하고 연구하는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힘이고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창작의 원동력이 된다. 본 논문에서 거론되는 본인의 작품들은 평소에 갖고 살아가지만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던 본인의 비가시적이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취욕이 가면으로 유형화를 통해 실체를 얻게 되었다. 이것의 근거를 위해 먼저 인간의 억압된 욕망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것들이 가면을 통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1) 예술을 통한 성취욕의 해소

‘욕망desire’은 일반적으로 어떤 동기가 실현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sup>1)</sup> 욕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무의식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

---

1) 최광진, 부드러운 욕망, 다빈치, 2004 p.9

고 있지만 그 자체로 충족되지 못하고 변형되어 나타나게 된다.

라캉<sup>2)</sup>에 의하면 욕망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구조란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sup>3)</sup> 문제는 계속 생기는 욕망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만 갈 때 발생한다. 욕망의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갇혀 있게 되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듯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병을 키우게 되기도 한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병리현상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이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 욕망을 자각하는 것은 욕망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할 때이다. 인간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충동은 바로 고착된 성취욕의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려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각증세이다. 이러한 성취욕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활동으로서 인간은 저마다의 행위를 하게 된다.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행위들은 그로부터 분화된 기표의 끝없는 연쇄작용을 유도한다. 인간들의 말이나 작품은 주체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창작의 욕망이 생성되는 것이다. 예술은 붙잡을 수 없는 실재를 붙잡으려는 욕망의 그림자이다.<sup>4)</sup>

---

2) 자크 라캉 [Jacques Lacan ] 19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하였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처음에는 철학을 배웠으나 후에 의학·정신병리학을 배웠다. 1932년 프로이트의 지도를 받았으며 《개성에 비추어본 망상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을 정신과 의사 및 정신분석학자로 지냈다.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탈퇴하여 1953년 프랑스정신분석학회를 창설하였다. 1966년 논집 《에크리 Ecrits》의 간행으로 갑자기 유명해졌으며, M.푸코 등과 함께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 라캉은 말년까지 무려 4백만 명이 넘는 환자를 상담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3) 자크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 1994 p.19

4) 최광진, 부드러운 욕망, 다빈치, 2004 p.9

니체<sup>5)</sup>는 오직 예술을 통해서 생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가상과 환상, 그리고 생성과 변화가 진리와 실재, 그리고 존재보다 더욱 심오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술은 때로 진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생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보다 신체적이고 보다 본능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니체는 예술을 생리학적이고 신체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예술은 활력에 찬 육체가 이미지와 욕망의 세계 속으로 넘쳐서 범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럼으로써 “예술은 생의 감정을 증가시키는 생의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보다 욕망을 더 우위에 놓은 것으로 삶의 근원적인 다양성을 어떠한 체계성에 의해 통일시키려는 기획들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본다. 삶의 환원 불가능한 다양성에 대한 그의 철학적 방어는 결론적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위치 부여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각종 형식의 규범과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을 억압해왔다. 그러한 억압된 욕망을 해방시켜 흐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예술은 바로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성취에 대한 욕구의 덩어리를 밖으로 풀어내어 흐르게 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

5)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년 10월 15일 ~ 1900년 8월 25일)는 19세기 독일 철학자이며 음악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종교, 도덕 및 당대의 문화,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비평을 썼고, 특유의 문체를 사용했으며 경구(aphorism)에 대한 자신의 기호(嗜好)를 드러내었다. 니체의 영향력은 철학과 철학을 넘어서는 다른 영역에도 실질적으로 남아있는데, 특히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러하다.

## 2) 욕망의 배출구, 가면

가면은 욕망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마리이자 그 자체로 본 논문의 연구에 있어 주목될만한 하나의 단서로서 여러 욕망에 관한 심리학적 내용들과 연계해주는 접목점이다. 라캉에 따른 결핍이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으로서의 욕망이 아닌 ‘생산으로서의 욕망’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뢰즈와 가타리<sup>6)</sup>는 욕망을 상실된 대상이나 결핍에 대한 수동적 반작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욕망의 본질과 작용이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을 예술작품 그 자체로 보았다. 가면이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개념과 조우하는 접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면’안에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욕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면은 불투명성, 비밀상성, 탈 개인성, 익명성의 속성을 지니고 신화적/탈신화적, 자연적/비자연적 욕망을 드러내며, 위장과 변신, 위반과 배출, 분리와 은폐의 작업을 행한다. 이러한 이중성을 발판으로 가면자체에서 사회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sup>7)</sup> 가면을 통한 욕망의 표현은 가면의 형상을 빌려 욕망을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형상을 통해 무언가를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면은 얼굴이라는 자동화된 인지 방식을

---

6)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1995] 가타리 [Felix Guattari, 1930-1992]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뢰즈는 미셸 푸코, 자크 라캉과 함께 대표적 프랑스 현대철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1925년 파리에서 태어난 들뢰즈는 소르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69년 박사학위논문 「차이와 반복」을 발표했다. 이후 소르본대, 뱅센대에서 강의했으며 87년 은퇴후 최근에는 예술TV채널 「아트」의 철학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었다. 들뢰즈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를 1968년 파리 8대학에서 만난 이후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 『천 개의 고원』 『철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공동 작업을 남겼다.

7) 김형기 외, 가면과 욕망, 연극과 인간, 2005, p.21

벗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존재’라는 표상을 불러일으키고 낮설음을 부여한다. 흉내 낼 대상이 없는 개인의 욕망에 관련된 이미지의 구현이야말로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였던 욕망의 표현으로서의 가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작업에서 보여지는 가면은 단순히 욕망의 재현으로서의 가면표현이 아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취욕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구로서, 일회적 소모품이 아니라 욕망의 배출구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욕망해소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크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했던 성취욕들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표현한 가면이라는 소재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면의 다양한 기능성<sup>8)</sup>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시각적 측면에서, 얼굴이 가려지고 ‘다른 무엇’인가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가면을 쓴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작동적 측면에서 보면 가면이 일차적으로는 얼굴을 가리는 작용을 하지만 은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표출하는 기능을 행한다는 점, 그리고 가면 착용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가면은 그 고유의 속성과 작동성에 힘입어 눈에 보이기만 하는 주변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 해방된 미술성, 음악성, 안면적 속성과 접속되는 결합들을 창안해 낼 때 가면은 욕망의 탈주를 추동해내고 성취욕을 표현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

8) 가면은 주술성의 기능, 일시적 배출구를 마련해주는 기능, 현실 너머의 현실을 비취주는 기능, 억압된 자아를 풀어주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파악해 냈을 때 비로소 서로와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길 것이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본인의 작품은 얼굴위에 각종 재료들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을 통해 표현되므로 일종의 가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온 본인의 작품에서 욕망이 가면으로써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나가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 1) 가면을 통한 표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면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고 가면을 쓴 자와 그것을 대하는 자들은 가면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뒤에 있는 욕망하는 존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면을 쓴다.’라는 데에는 가면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어떤 것을 위해 그 동안 익숙해 있던 모습이 가면에 덮이게 되는 기본적인 형성 방식이 있다. 평소에 보이는 본인의 얼굴은 ‘익숙한 것’이고 가면으로 덮이는 것 자체는 ‘내면의 욕망이 외부로 분출되는 것’이었다. 화가들에게 캔버스는 의식과 정서 활동의 확대 공간이 된다.<sup>9)</sup> 본인의 얼굴 두상 또한 욕망을 가면으로 구현하기 위한 캔버

---

9) 이광래, 미술을 철학한다, 미술문화, 2007 p.150

스 역할을 하고 있다. 무표정으로 만들어진 본인의 얼굴에서는 개성이나 살아온 흔적을 읽을 수 없지만 이것은 그 위에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면과 조우하며 새로운 얼굴 형상이 된다. 가면을 형성하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함은 본인 내면에 있는 욕망들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여 새로운 욕망을 형성하기도 하고, 욕망이 겹겹으로 내비쳐짐으로 인해 소멸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욕망이 탄생되기도 한다. 욕망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가면 또한 표현 방법과 의미에 대한 범주가 광범위하였기에 욕망의 다양함이 곧 가면 표현의 다양함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가면은 실제적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하거나, 혹은 주술을 걸거나, 치장을 하는 등의 기능은 상실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자화상처럼, 본인에게 가면의 제작이란, 본인의 희로애락을 얼굴 위에 토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조형하는 과정의 처음부터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미지를 얻지 않고 곧바로 ‘생각’ 속에서 표현할 이미지를 고안해 내는 조형방식에 따라, 가면은 본인의 욕망에 관한 표류흔적이고 콤플렉스의 해소 결과물이었다.

앤디 워홀<sup>10)</sup>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들끓는 자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물의 본질보다는 사물을 둘러싼 이미지에 반응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

10) 앤디 워홀 (Warhol Andy, 1928~1987)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한 앤디 워홀은 피츠버그의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1952년경부터 뉴욕에서 상업디자이너로 활약하다가 팝아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2년 뉴욕 시드니 재니스 갤러리에서 열린 '새로운 사실주의자들 New Realists' 전시에 참여해 주목을 받으며 수프 깡통이나 코카콜라 병, 달리지페, 유명인의 초상화 등을 실크스크린 판화기법으로 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사교계나 정치계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1972년 《마오 Mao》 시리즈로 다시 회화 제작에 전념하였다. 1987년 2월 22일 담낭 수술과 폐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것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면서 인간의 욕망이란, 먹어도 먹어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코카콜라의 거품’과도 같음을 잘 알고 있었다.<sup>11)</sup> 그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로서 상품화 된 오브제를 선택하였듯이, 본인이 가면을 통해 표현하려는 본인의 욕망에 대한 본질은 물질의 취득이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런 욕망들은 지금도 본인의 내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형되어 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같은 종류, 같은 성격의 욕망일지라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지금 이후에 욕망의 표현 도구로서의 가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가면의 형상과 그 조형의 지각을 통해 가면의 ‘감추기와 드러내기’라는 기본적 성격에서 한발 나아가 감춰져 있는 내부의 욕망을 드러내고, 드러나 있는 얼굴을 감춤으로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 2) 재료선택의 다양성

가면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그 내용이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읽힐 수 있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가면을 제작하였는데, 그 재료들은 각각의 물질 본연의 성질 자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재료가 원래 갖는 용도의 기능성을 버리고 새로운 기능으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한 점은 시각화 하려는 욕망과의 관계성이었다. 재료에 따라 직접적으로

---

11) 서지형, 속마음을 들킨 위대한 예술가들, 시공사, 2006 p.155

본인의 내재된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한번 걸러진 내용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재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재료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재료 위주였다. 앞서서 언급한 니체의 말과 같이 예술행위 자체가 욕망의 표현이고 작가로서 본인에게는 작업실이 욕망의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공간의 산물로서 다른 작업을 위해 모아두었던 각종 재료들이 욕망의 표현으로서의 도구로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재료의 물질 본래의 성질을 이용한 [작품1]에서의 가면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어 갈 때 상대방에게 하여금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서로에게 비추는 첫 모습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포장된 물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비닐은 성질이 투명하여 안의 내용물을 확인 할 수는 있지만,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 뿐, 만지거나 꺼내 볼 수 없고 아직 타인을 대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로인해 선택된 비닐은 본연의 모습 전체를 밀봉하여 하나의 가면을 형성하게 된다. 마치 진열장에 뜯기지 않은 포장된 상품처럼 말이다. 또한 각종 사회범죄와 불신이 팽배해진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그 높이가 높아지는 타인에 대한 심리적 방어벽은 약해보이고 싶지 않은 본인의 욕망이 [작품2]에서 중세시대의 철 가면 같은 형상으로 표현된다. 겉으로 보기에 그 내면을 전혀 투사하지 못하게 보이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동판을 사용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면은 타인에 대한 마음의 벽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한 동판은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땐 두께가 얇아 유연성이 있지만 열을 가하고 망치로 두들기면 식었을

때 강도가 강해지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동판을 다루는 행위 자체가 나약한 본인의 내면이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재료 고유의 성질을 이용한 가면은 [작품3]에서도 보인다. 타인을 대할 때 본인은 흑여 실수를 하진 않을까, 무례하진 않았나, 하는 긴장감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박혀있다. 이러한 것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심어져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미스코리아 대회의 후보들, 시민을 대하는 정치가들의 얼굴이 그것이다. 그들의 일관된 밝은 미소와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가 그들의 얼굴을 사방으로 당겨 팽팽히 조율하듯이 보인다. 본인은 그러한 모습들을 라텍스라는 고무 성질의 재료로 탄력을 주고 와이어로 당겨 줌으로써 긴장감을 표현한 가면을 제작하였다. 비단 긴장감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세월이 주는 훈장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인간 얼굴의 주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형 등으로 세월을 역행하려는 욕망은 요즘 시대엔 욕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할 정도이다. 하지만 결국 예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결국 늙는다. 라텍스라는 재료도 마찬가지다. 고무장갑이나 풍선의 주된 재료로 사용되는 라텍스는 인공라텍스로 그 수명이 엄청나게 길지만 본인이 사용한 라텍스는 천연라텍스로서 그 수명이 길지 않다. 인간의 피부가 상하듯이 라텍스를 상온에 오래 두게 되면 곰팡이가 피어나고 자연스럽게 부식된다. 반면에 인공적인 라텍스를 사용하여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성되는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 있다. [작품4]에서는 터지기 직전의 본인 내면의 욕망세포들을 표현한 것이다. 풍선의 어떤 공간을 꾸미거나 즐거움을 주는 매체의 기능은 사라지고 내부에 그 모습을 숨겨두고 있지만 터지면 건잡을 수 없는 내부 종자들이 풍선이라는 재료를 통

해 가면으로 형상화 된다. 프로이트<sup>12)</sup>의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다'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살아있는 동안 사라지지 않는 다양한 욕망들은 썩지 않는 붉은 라텍스로 만들어진 풍선으로 가시화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탄력성을 가지는 성질의 라텍스는 팽팽하고 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속이 비취지는 표현을 위해 비닐재료를 선택해 사용하였다. 또한 열을 가하면 더욱 강도가 강해지는 재료의 동판은 단단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가면의 표현에서 재료는 조형화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의도에 따라 변형되기도 하고 그대로 이용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가면의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12)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심리학자 출생-사망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1939년 9월 23일 학력 빈대학교 의학 경력을 가졌으며 1936년 영국 학술원 객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896년 정신분석이란 용어 처음으로 소개되고 1887년 최면 암시 요법을 치료에 사용하였으며 1877년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출판한 바 있다.

### 3. 작품분석



[작품1] 첫 만남

**작품제목** : 첫 만남

**제작연도** : 2010

**작품크기** : 30X45X15Cm

**작품재료** : 합성수지, 아스테이지, 나무틀

### **제작방법**

얼굴의 제작: 본인의 얼굴을 유토로 원형 작업 후 그 위에 석고로 곁틀을 제작하여 합성수지로 캐스팅한다. 캐스팅 된 합성수지 원형을 사포로 표면 정리 후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다. 이러한 얼굴조각을 나무틀에 접착제와 나사로 고정시킨다.

나무틀과 고정된 얼굴 위에 아스테이지를 열풍기로 유연하게 가열하여 나무틀에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 처음 보는 사람과 조우하게 될 때 가끔 본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만큼 어색해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곤 한다. 사람이란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하여금 좋은 인상이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 본인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입버릇처럼 ‘나의 첫인상은 어떠했나?’ 에 대해 묻고는 한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은 ‘첫인상과 많이 다르다.’였다. 그것은 긍정의 다름과, 부정의 다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달랐다’라는 이야기로부터 본인의 첫인상은 마치 아직 개봉되지 않은 포장되어 있는 물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사용해 보지 않은 물건

은 그 물건을 사용해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본인에게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진실 된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기대감에 대한 바람은 경험을 통해 진화한 욕망이었다. 이러한 첫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강박적으로 박혀 있으며,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시작의 단계임을 암시하며, 비닐로 덮어진 가면을 제거했을 때 남아 있는 본인의 모습은 ‘첫인상과 다른’ 모습의 존재만이 남아 있게 된다.



[작품2] 뚫리지 않을 자신감

**작품제목** : 뚫리지 않을 자신감

**제작연도** : 2010

**작품크기** : 30X45X15Cm

**작품재료** : 합성수지, 동판, 나무틀

### **제작방법**

얼굴의 제작 : 위와 동일.

0.1mm 두께의 동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강화석고로 떠낸 얼굴 틀 위에 용접시키며 형태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용접봉을 녹여 입혀 눈 부분이 뚫려 있는 가면을 제작한다. 제작된 동판 가면을 채색한 합성수지로 캐스팅 한 얼굴 위에 에폭시 본드로 부착한다.

**작품설명** : 본인은 자존심이 세다. 추구하는 일, 생각에 질타를 받으면 열등감에 몸서리를 친다. 또한 본인은 넘쳐나는 욕망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신감 또한 끝없이 타오르고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으며 불가능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면들에 질타를 당하면 상처도 잘 받고 쉽게 우울함에 빠지며,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 탓에 속은 늘 멍이 들어 있다. 한번 생긴 마음의 상처는 곁에 생긴 상처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아물어 낫지만, 흉터는 남는다. 애초에 상처받지 않는다면 흉터 또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이 가면은 타인으로부터, 침범 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제작되었다. 주된 재료인 동판의 구리 자체는 부식도 쉽지 않고,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재료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동판으로 가면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는 또한,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보호하고 싶은, 혹은 외관상 더욱 강해보이기 위한 하나의 욕망 형성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작품3] Tension

작품제목 : Tension

제작연도 : 2010

작품크기 : 30X45X15Cm

작품재료 : 합성수지, 라텍스, 와이어, 나무틀

### 제작방법

얼굴의 제작: 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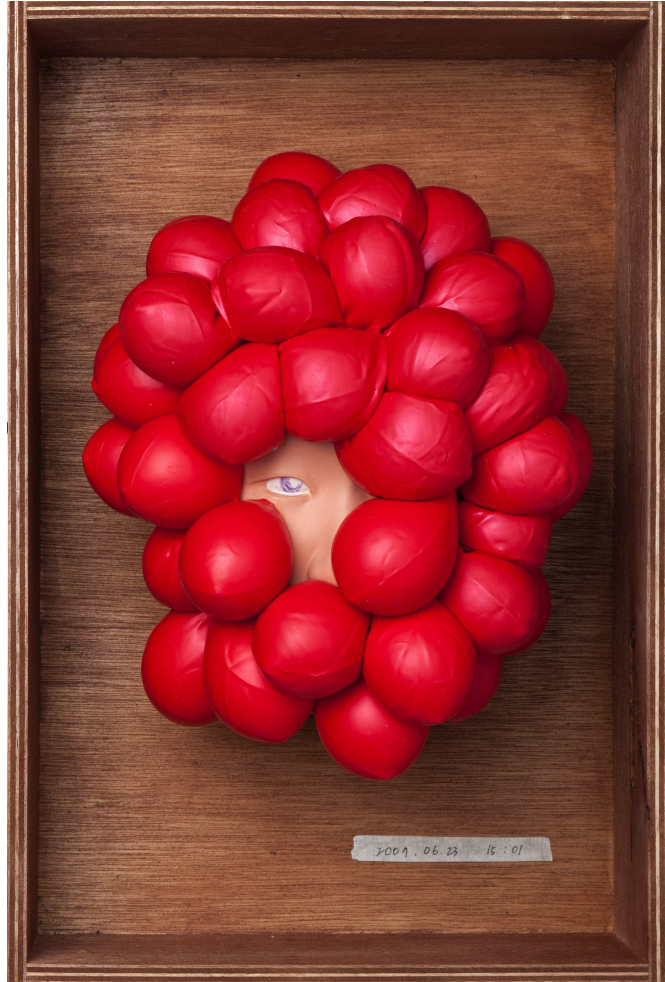
이러한 얼굴조각을 나무틀에 접착제와 나사로 고정시킨다. 나무틀과 고정된 얼굴 위에 얇게 떼내어 경화된 라텍스를 올리고 모서리 방향으로 와이어를 연결해 팽팽히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 본인이 자주 지적받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표정관리를 못 한다.’이다. 마음속의 좋고, 싫은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내비쳐 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거짓된 얼굴을 드러내야만 하는 행동이 때론 솔직함 보다 더욱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곤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 타인과의 상호활동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며, 사회생활은 대인적인 교섭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에 자신을 맞추는 태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권위 있는 자와 없는 자 등의 구조적인 형태의 사회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성된 암묵적인 사회규범을 동조하지 않고 이탈할 때에는 비난 내지는 집단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아

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간주하는 예술가 역시 사회집단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러한 사회규범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타인 때문에, 사회규범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좋은 것, 싫은 것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향한 억압된 자유는 결국 감출 수밖에 없는 욕망으로 변질되었고 와이어로 팽팽히 당겨져 있는 얼굴 꺾테기와 같은 모습의 천연라텍스 가면이 결여되어 있는 본인의 일면을 대변하고 있다.



[작품4] 손대면 푹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작품제목** :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제작연도** : 2010

**작품크기** : 45X30X15 Cm

**작품재료** : 합성수지, 풍선, 나무틀

### **제작방법**

얼굴의 제작: 위와 동일.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고 묶은 일정 부분에 접착제로 얼굴 위에 부착한다.

**작품설명** :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인에게는 무엇인가에 쉽게 중독된다는 것, 호기심이 과하다는 것, 말실수가 빈번하다는 것 등 나열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의 많은 취약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도 분명 본인을 이루는 욕망들이지만 스스로가 조절을 하고 살아가므로 늘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드러나게 되어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로 되돌아오곤 한다. 이렇듯 평소엔 팽팽한 상태로 (혹여 드러날까 하는 조바심) 내부에 그 모습을 숨겨두고 있지만 터지면 견잡을 수 없는 내부 종자들은 풍선이라는 재료를 통해 가면으로 형상화 된다. 풍선은 바람을 불면 일정 부피 내에선 그 모양을 유지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으면 터져 버리고 만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비추고 살아 갈 수는 없다. 혹여나 드러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누구나 있는 내면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욕망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가면으로 표현되어 불안한 속내를 드러낸다.



[작품5] 내가 집착하게 된 건 너 때문이다

**작품제목 :** 내가 집착하게 된 건 너 때문이다

**제작연도 :** 2010

**작품크기 :** 45X30X15 Cm

**작품재료 :** 합성수지, 글루건, 나무틀

### **제작방법**

얼굴의 제작 : 위와 동일.

그 위에 검은 심의 글루건으로 거미줄 형상을 그려낸다.

**작품설명 :** 본인은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자 전화를 연달아 30여 통이나 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른 경험이 있다. 그 친구의 집착은 영화 ‘미저리’ 수준이었다. 본인 또한 그 정도로 병적은 아니지만 남자친구, 동성친구 혹은 물건이나 행위에 강한 집착을 보이곤 한다. 타인 혹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생성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욕망으로 결국 변질되고야 만다. 소유욕에서 혹은 상대의 불신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집착은 인간의 억눌린 욕망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행위중 하나라고 보았다. 이러한 집착은 때론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우아매기도 한다. 자기가 쳐 놓은 덫에 걸려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면으로 표현하였다. 위협적이고 음산한 느낌을 주는 이 가면은 집착이라는 인간의 한 면모를 거미줄 형태로 접착성 있는 글루건을 이용해 얼굴에 밀착되었다. 보는 이에겐 무언가 경고를 심어주는 듯한 강한 인상으로 이미지화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자신이 갇혀 있다.

### Ⅲ. 결 론

가면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연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다양한 욕망과 그것들의 은폐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속의 가면들은 상징성과 주술성을 가지고 기능하였으며 이제는 하나의 전리품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의 본질 또한 그 생성의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성취욕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점이 행위와 관념을 통해 형성되는 가면으로서 지금의 현대사회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면이 성취를 향한 욕망의 감추기와 드러내기를 표현하는 예술적 작품으로 그 생명력을 가졌을 때 다양한 의미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변모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 집단속에 있는 개개인들은 일에 몰두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더욱 빨라지는 사회변화의 속도에 자신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다. 현대인으로서, 조각가로서 본인은 살아가며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면으로 구조화시키고 가면의 제작을 통해 그것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매개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인에게 욕망이 결국 가면의 제작으로 연계되는 과정은 억압된 성취욕을 풀어주어 일말의 해소를 가져다주었다. 본인의 욕망은 대상에 대한 막연한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취욕으로 진화하였다. 대부분의 욕망은 억압되어 있지만 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작건, 크건 부정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양하게 변모하는 현 시대에 욕망의 표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향이며 조각가로서 본인에게는 작품으로서 타인과 시각언어로서 공유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욕망을 표현을 연구해야 하는 계기로서 다가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형기, 이영임, 안소현, 이호경, 고희상 <가면과 욕망> 연극과 인간, 2005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박영수,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 을유문화사, 1997

서지형, <속마음을 들킨 위대한 예술가들> 시공사, 2006

이광래, <미술을 철학한다> 미술문화, 2007.

최광진, <부드러운 욕망> 다빈치, 2004

Jacques Lacan, <욕망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

## ABSTRACT

### **A study of creation about human being's successful mind which is revealed on masks**

-Focusing on this researcher' works-

Lee, Ji sook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ccessful mind of human is one of instinctive facts to lead individual lives and motive power of creation for artists regardless of nationality, gender and age. It is hard to look back themselves, due to the fact that concerning others and living with rapidly changing society, individual successful mind would be ignored without expression. However, successful mind does not disappear instinctively, it keeps being generated. Human beings have potential successful mind to reveal their true characters.

A mask is my work material as a tool which reveals successful mind of human in these backgrounds. A mask is detailed and realized about successful mind. It

was born and became visualized concretely as a piece of work through a media so-called a disguise of an invisible and abstract human desire.

This thesis was composed of a total of three chapte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work forming the background and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he contents for research and analysis.

I. Introduction for study and research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explained to the content.

II. The body is in the following sections.

1. Work i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successful mind of human and go through the review of the overall face of successful mind of human is represented as mask linkages have been studied.

2. Expressed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successful mind of human being was revealed by a mask and a work which has been made by background through my own thought. This thesis will show how a mask expressed with a proper base and what kind of effect occurred by various material choices.

3. Work of artistic expression in the work of the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the intention was described in detail.

III. Conclusion expressed successful mind of human to go through the masks on the overall cleanup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work are presented.